

##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1월 5주 ~ 12월 1주차)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2024년 GDP 성장률 3%로 상향 전망(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4년 폴란드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로 상향 조정함
  - 2025년 폴란드 경제는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높은 성장률에 해당. 유럽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2~3분기 동안 완만하지만 꾸준한 확장세를 기록함
  - \* 러-우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며, 보호 주의 강화가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 2024년 첫 9개월 동안 30억 유로 무역흑자 기록(통계청, GUS)
  -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30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 해당 기간 동안 폴란드의 수출액은 2,601억 유로, 수입액은 2,571억 유로였음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8% 감소했으며, 수입은 0.3%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 체코, 프랑스이며, 최대 수입국은 독일, 중국, 미국임
  - \* 2023년 폴란드는 약 98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연간 수출액은 3,531억 유로, 수입액은 3,433억 유로였음

####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2024년 첫 10개월간 GDP는 전년 대비 4.2% 증가(경제부)
  - 10월 한 달 동안은 전년 동월 대비 GDP가 1.3% 증가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복구 프로그램 실행에 따라 건설수요가 증가하여 건설 부문의 성장이 주요 요인이 되었음
  - 올렉시 소블레프(Oleksiy Sobolev) 경제부 제1차관은 교통 및 가공 산업이

올해 10개월 동안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동력이었다고 언급함

- 정부는 2024년 GDP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쟁, 안보 리스크, 에너지 부족 및 인력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2.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2024년 GDP 성장률 4% 전망 확정, 내년 전망 조정(IMF)

- IMF는 2024년 우크라이나의 GDP가 4%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이후로는 2.5~3.5%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11월 19일 발표된 Extended Fund Facility(EFF) 프로그램의 6차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됨
- 러시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회복력을 보였으나, “에너지 인프라 손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역풍”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번 전망은 2024년 3%, 2025년 최대 2.5% 성장으로 예측했던 이전 예상치보다 더 낙관적인 수치임
- 2025년 예산 적자는 전쟁 관련 지출로 인해 GDP의 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IMF와 EFF 프로그램의 6차 검토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11억 달러를 국가 예산으로 수령할 예정
- 또한, 우크라이나는 11월 4일 세계은행과 약 6억 달러의 자금을 우크라이나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협정에 서명함

○ 바이든 행정부, 우측 경제 지원 대출 46억 5천만 달러 취소 제안

-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지원 부채 중 46억 5천만 달러를 취소하겠다는 의도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4월 통과된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법(Additional Security Appropriations Act for Ukraine)에 따라, 총 6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및 경제 지원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100억 달러는 조건부 대출로 배정됨

-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최대 50%의 대출을 취소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2026년 1월부터 차기 행정부에서 취소 가능함
- 국무부 대변인 매튜 밀러는 이번 결정이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의회가 반대 결의를 할 기회가 있지만 초당적 지지가 확실하다고 강조함
- 이번 통보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이루어진 것이며, 의회가 이를 검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 웹시社, 폴란드에 3.5MW 태양광 발전소 개설(11.22)

- 미국 식품 대기업 웹시코의 폴란드 지사는 폴란드 남서부 실롱스키 주에 3.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개설
- 2025년에는 추가로 최소 3M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웹시코 폴란드 경영진이 밝힘

\* 부지면적은 약 2ha이며, 6,000개 이상의 양면 모듈 패널을 설치, 완공된 첫 해 2.8GWh의 전력을 공급, 이는 공장 전체 전력 소비량의 24%를 충족할 예정임

#### ○ 퀀타(Quanta)社, 포즈난 폭스바겐 공장 3MW 태양광 발전소 건설(11.21)

- 폴란드 태양광 설치업체 퀀타 에너지 SA가 폭스바겐 포즈난 공장을 위한 3.1MW 규모의 두 번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며, 올해 초 13.2MW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됨

\* 두 발전소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전력의 20%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는 22,800개의 PV 모듈을 사용해 6개월 만에 완공, 두 번째 단계는 4.3ha의 부지에 5,300개 이상의 PV 모듈이 설치될 예정

#### ○ 폴란드, 전력 송배전망 개발 계획(11.21)

- 폴란드는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목표와 보조를 맞추며,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임. 이 과정에서 송배전망의 현대화 및 확장은 필수적이며, 향후 5~10년 동안 전력 수요 증가 및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발전 예상

- 2023년 폴란드 에너지 규제청(URE) 자료에 따르면, 분산형 전력망의 기존 인프라는 노후화되어 있으며, 이는 정전 및 송전 손실을 유발하고 있음. 특히, 농촌 및 교외 지역에서 송전손실 문제가 두드러지며, 스마트 그리드 기술 도입이 필수적인 상태로 보고 있음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전력 소비 비중을 최대 50%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기후부처의 송전망 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됨. 2030년까지 약 64억 PLN의 투자가 필요하며, 4,850km의 신규 송전선과 28개의 변전소가 건설될 예정임
- 투자 전략 측면에서 EU 기금, 민간 자본을 통해 송배전망 현대화 자금을 마련할 예정임. 폴란드의 주요 배전 사업자들은 2028년까지 총 726억 PLN를 투자할 계획임

\* URE : Urząd Regulacji Energetyki, Energy Regulatory Office

#### ○ Equinor Polska社, Bałtyk2, Bałtyk3 유지보수용역 제공(11.21)

- Polenergia와 Equinor는 총 1,440MW 규모의 Bałtyk2와 Bałtyk3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MFW Bałtyk II Sp. z o.o.와 MFW Bałtyk III Sp. z o.o. SPC사 각각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Equinor Polska는 두 풍력 발전소 모두 약 30년 동안 운영 및 유지보수(O&M)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 O&M 계약에는 사무실, 창고, 통제실, 선착장을 포함한 서비스 기지의 접근과 유지관리도 포함되며, 프로젝트 관리, 행정 및 회계, 운영, 서비스 기지의 건설, 장비 조달, 접근성 제공 등을 Equinor Polska가 책임짐

#### ○ 폴란드, 2031년까지 해상 풍력 용량 목표를 12GW로 상향(11.18)

- 폴란드는 2025-2031년 해상 풍력 경매 용량을 5GW에서 12GW로 확대하며, 2025년과 2027년 각각 4GW, 2029년과 2031년에는 2GW씩 경매를 진행할 예정
- 이러한 용량 증대는 폴란드 에너지 규제기관(URE)이 2025년 해상 풍력 경매를 최대 4GW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20%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OEG Renewables社, 발틱 해상 풍력 단지 부지정리 작업계약(11.18)
  - OEG Renewables는 1.14GW 발틱 파워 해상 풍력 발전소 암반 제거 작업 계약을 수주함
  - Hughes Subsea팀은 2024년 10월부터 그다니아 항에서 작업을 시작, 130m<sup>2</sup> 에 달하는 해저 바위 조사 및 암반 제거 작업이 진행 중. 첫 주에 800개의 목표물이 식별 및 제거되었으며, 현장 준비 후 15MW 용량의 풍력 터빈 76기가 설치될 예정
  - \* OEG Renewables은 영국 기반의 OGE Energy Group 자회사로서 해양 또는 육상 프로젝트를 주력으로 하며, 100년 전통의 해양 및 해저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Hughes Subsea 회사를 2021년도에 인수하였음
- Panattoni社, 파크 슐레후프 III, 75백만 유로 대출 확보(11.20)
  - 파나토니는 런던 지점의 씨티뱅크로부터 75백만 유로의 대출로 파나토니 파크 슐레후프 III(Park Sulechów III) 사업 자금을 조달함
  - 프로젝트 초기 90,000m<sup>2</sup> 규모의 창고를 계획했으나, 주요 전자상거래 고객의 요구에 따라 46,000m<sup>2</sup>가 추가로 확장됨
  - 건물은 고객의 물류 운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개 층(멀티스토리)으로 구성된 피크타워(picktower)를 포함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
  - \* (입지조건 및 친환경 요소) 베를린과 폴란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A2, A4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 S3 고속도로를 통해 슈체친 및 지엘로나 고라(Zielona Góra)로의 접근성도 우수. 건물등급은 BREEAM 'Excellent' 등급을 획득했으며, BMS 시스템, 지능형 조명,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지붕 등 친환경 솔루션을 갖춘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에 10억불 금융 지원 서한 체결(10.29)
  - DFC가 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40억 PLN)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서한에 서명
  - DFC는 중부 및 동유럽 지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계획
  - \* DFC의 금융 지원 외에도 미국 수출입은행(US-EXIM)이 700억 PLN(171억불) 금융 지원을 고려 중

○ EBRD, R.Power社 그린 본드 발행에 3천만 유로 투자(11.5)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폴란드의 R.Power SA가 발행하는 그린 본드에 최대 127.8백만 PLN(약 3,190만불/2,930만 유로)을 투자하기로 합의
- R.Power의 530백만 PLN 규모의 그린 본드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의 개발, 건설,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채용자하는 목적으로 쓰여짐

\* R.Power는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에서 26GWp 이상의 PV 및 BESS 자산 포트폴리오 보유하며, 이번 EBRD의 투자와 관련하여 R.Power는 EBRD 투자금과 동등한 금액을 EBRD가 운영하는 국가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을 약속함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2025년 예산안에 60% 국방 및 안보예산으로 배정(11.20)

- 국회는 2025년 예산안을 승인, 전체 예산의 60%인 540억불(2조 2,300억 흐리브냐)가 국방 및 안보에 배정
- 2025년 총 예산은 870억 달러(3조 6,000억 흐리브냐)로 책정되었으며, 국방 및 안보 지출이 예산의 최우선 순위
- 총리는 방위, 안보, 국민 지원, 국가 복구가 이번 예산의 핵심이라고 강조, 모든 세금이 국방과 안보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의 국방 지출은 우측의 세 배에 달할 예정; 1,350억불이 국방에, 350억불이 국내 안보에 배정됨

○ 국제금융기관, 우크라이나 기업을 위한 210백만불 규모의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 도입(11.22)

- IFC, DFC, Raiffeisen Bank Ukraine이 우크라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10백만불 규모의 리스크 분담 메커니즘(risk-sharing mechanism)을 도입할 계획
-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특히 재생 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에 일부 자금이 할당될 계획

\* 해당 메커니즘은 스위스 경제부, 프랑스 정부, 영국 외교 개발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을 받아 실행

○ 이탈리아, 우크라이나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확대 및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복구에 2억 유로 투자(11.22)

-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는 핵심 원자재 분야의 물류 협력을 심화하는 협약을 체결함(11.20, 로마). 이는 투자 유치와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하며, 핵심 원자재 가치 사슬 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을 촉진하고 상업적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이탈리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5개 주요 부문인 금속 및 핵심 자재, 재생 에너지, 방위 산업, 농업 가공, 공학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
- 이탈리아 외무부 장관 안토니오 타야니는 이탈리아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복구를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밝힘. 또한, 2025년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를 조직할 예정이며, 지금부터 재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Metinvest社, 이탈리아 정부와 25억 유로 규모의 철강 공장 건설 협력 (11.22)

- 우크라이나의 광업 및 제철 그룹 멧인베스트와 이탈리아 기업부는 피오비노(Piombino, 이탈리 남단위치) 지역 산업 재건을 위한 협력 선언서를 체결
- 협정문에 따라 25억 유로 규모의 친환경 철강 생산 공장이 2025년에 착공, 2027년부터 생산 시작 예정임(연산 270만톤 생산규모)
-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은 이탈리아의 신용수출 기관인 SACE와 주요 은행인 카사 데포지티 에 프레스티티(CDP,Cassa Depositi e Prestiti)가 제공할 계획

\*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프로그램 협정문은 2025년 초에 체결될 예정임

○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건설 분야 투자 활동 가장 활발(11.21)

- 2024년, 우크라이나 건설 시장에서 서부 지역은 투자 유입, 신규 주택 건설, 가격 상승 등 모든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
- 전쟁기간 동안 트란스카르파티아(Transcarpathian) 지역은 주택 건설 사업 시장 진입 속도가 급증하며, 지난해에는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180% 증가, 2024년에는 24%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바노-프랑키브스크(Ivano-Frankivsk) 지역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며, 우즈호로드(Uzhhorod)의 건설량은 전쟁 전 수준을 200% 초과함. 다만, 전시 중 주택 건설 단지 수는 우즈호로드가 리비우에 비해 뒤처짐
- 전쟁 시작 이후 건설업자들은 500개 이상의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르비우 지역이 150개의 주택 단지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키이우 지역에서는 70개의 프로젝트가 시작됨

\* 2022년 키이우의 건설 속도는 2021년에 비해 80% 감소했으며, 2023년에도 개선이 미미했음

#### ○ DTEK社 전선 100km 이내에서 풍력 발전소 건설,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 예정(11.20)

- DTEK은 “전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선 100km 이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대표가 언급하며, Tyligulska 풍력 발전소의 첫 번째 114MW규모의 발전소가 완공되었음을 알림
- 1단계의 발전소는 현재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단계는 384MW의 전력을 생산해 9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
- 해당사업은 그린 요금제(신재생에너지 차등요금제)를 적용받지 않고,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점이 특징이며, 사업비는 650백만 유로로 추정됨

#### ○ 인프라부, 항만 양허성 차관사업 재개 준비(11.13)

- 인프라부는 중단되었던 항만 양허성 차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신규 양허성 사업 또한 준비 중임을 발표. 특히, 재개사업으로 올비아(Olbia)와 헤르손(Kherson) 항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
- 타이무르 트카첸코(Tymur Tkachenko) 부국장은 UDP(우크라이나 다뉴브 해운)회사와 협력하여 다뉴브 운송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양허성 프로젝트의 실행 일정 작업은 국제금융공사(IFC)와 협력하여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최적의 컨세션 입찰 조건을 결정할 계획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종합계획수립(마스터플랜,MP) 사업

①-1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1단계)

< 사업 개요 >

- (용역사) 유신, 삼정회계법인, 한국교통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건축사무소
- (용역비) 1,122백만원
- (용역기간) 2023.12.29.~2024.11.22.(330일)
- (주요내용) 키이우 지역 교통중심의 공간개발 및 재건계획 수립,
- (추진현황) '23.12월 타당성조사 직접지원 사업 선정  
'24. 2월 우크라이나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24. 9월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  
'24.10월 초청연수 개최  
'25.02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9.27), 우크라이나 공무원 방한초청 연수 실시(10.28~11.2), 향후 자문회의('25.1)를 걸쳐 국내외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①-2 키이우 지역 교통 마스터플랜 사업(2단계)

< 사업 개요 >

- (용역사) 한국교통연구원, 유신, 톰스
- (용역비) 960백만원
- (용역기간) 2023.5.27.~2024.11.22.(180일)
- (주요내용) 키이우주 교통모델링 구축, 스마트모빌리티 전략 수립
- (추진현황) '24. 3월 타당성조사 직접지원 사업 선정  
'24. 7월 우크라이나 현지 교통현황 조사  
'24.10월 중간보고회, 초청연수 개최  
'25.02월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국내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시행(10.23), 우크라이나 공무원 방한초청 연수실시(10.28~11.2), 향후 자문회의('25.1)를 걸쳐 국내외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② 6대 선도 프로젝트(참고)

## 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

###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 사업 개요 >

- (사업주) Grupa Azoty, Grupa Lotos,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업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4. 12월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발급

- (주요동향)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 대주단 성능 시험 준비 중  
- 준공검사 기간 중 생산된 제품 판매 진행 중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li> <li>•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li> </ul>	KIND L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ND 등 키이우 현지 착수보고 완료('24.2월)</li> <li>• 키이우주정부, 인프라부 등 공정회의(주1회) - 자료요청 및 기본 재건 방향 등 협의</li> <li>• 초청연수 실시('24.10월)</li> </ul>
우만 스마트 시 마스터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li> </ul>	K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4월4주)</li> <li>•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li> </ul>
보리스필 공 현대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li> </ul>	한국 공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24.10월, PMC 용역발주</li> <li>• FS : 국토부 지원 사업 추진 중</li> </ul>
부차시 하수처리 시설 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li> </ul>	환경산업 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5년 上)</li> <li>* 환경부 F/S 지원사업</li> </ul>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li> <li>•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li> </ul>	수자원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외교부 ODA 사업으로 '이르핀강 댐 재건 MP 수립' 및 '키슬리치강 유역보전 MP수립' 용역 발주 예정('24년 下)</li> </ul>
철도 노선 고속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 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919km) 중 우크라 구간(580km)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li> </ul>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년 KOICA ODA 사업으로 기획조사 후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24년 下)</li> </ul>